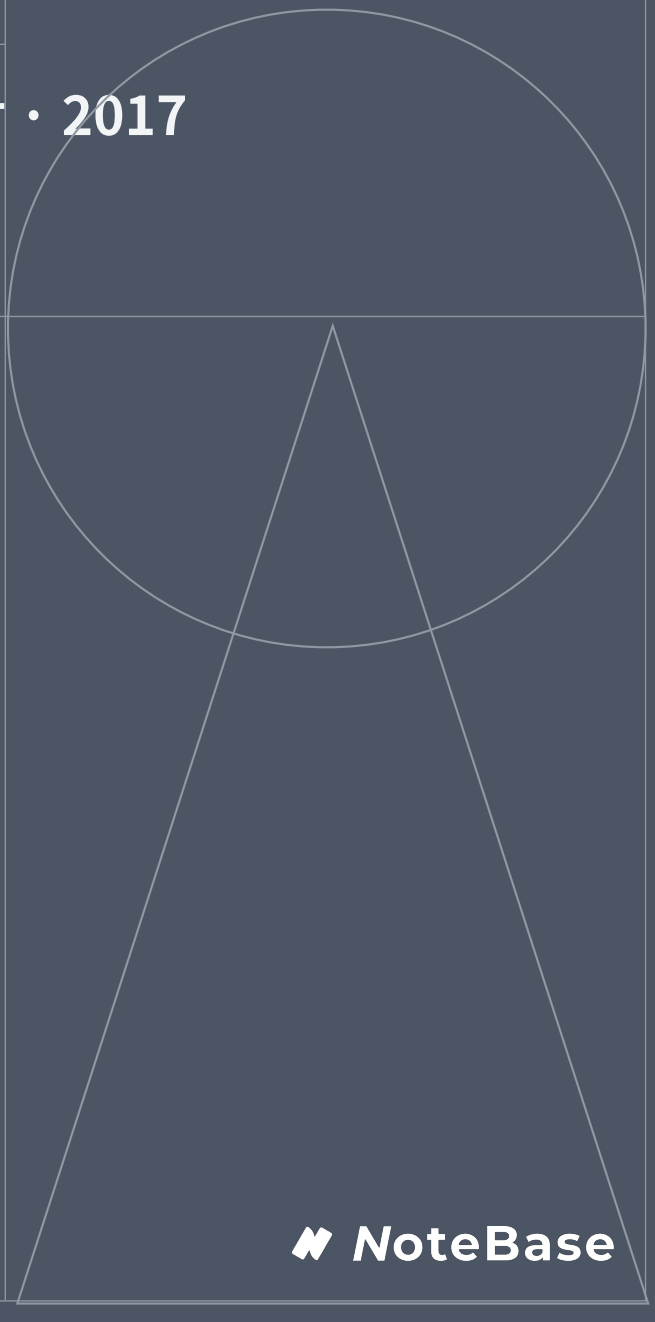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7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7

문 1. (주)한국의 2016년도 재무제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6년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000,000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대손상각비 ₩30,000 매출채권(장부금액)증가액 ₩80,000
감가상각비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
건물처분이익 ₩200,000 재고자산(장부금액)감소액 ₩50,000

① ₩1,130,000
② ₩1,100,000
③ ₩1,080,000
④ ₩87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증감액**을 사용하므로 대손상각비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의 순조정액이 −130,0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13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발생주의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에 비현금항목, 투자·재무활동 관련 손익, 영업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하여 구한다. 이 문제는 영업활동현금흐름 1,000,000원에서 이러한 조정을 거꾸로 적용하여 2016년도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감가상각비와 건물처분이익: 감가상각비 100,000원은 당기순이익을 줄였지만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더한다. 건물처분이익 200,000원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었지만 **건물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에 해당하므로 뺀다. 두 항목의 순조정액은 100,000 − 200,000 = −100,000원이다.

매출채권 증가: 매출채권이 증가하면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늘어나므로 80,000원을 뺀다. 주어진 증가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의 증가액**이다. 대손상각비 30,000원이 장부금액을 감소시킨 효과가 이미 이 증감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대손상각비를 별도로 더하면 중복 조정이 된다.

재고자산 감소: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에 비해 재고 취득에 투입된 현금이 적으므로 50,000원을 더한다. 주어진 감소액은 **평가손실이 반영된 장부금액의 감소액**이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원의 비현금 효과도 이 감소액을 더하는 과정에서 조정되므로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역산: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의 순조정액은 −100,000 − 80,000 + 50,000 = −130,000원이다. 즉,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130,000원 작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000,000 + 130,000 = 1,130,0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2015년 3월 1일에 건물 임대 시 1년분 임대료 ₩36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임대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기말에 수정분개를 누락하였다. 그 결과 2015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자산총계 ₩60,000 과대계상

② 자본총계 ₩60,000 과소계상

③ 부채총계 ₩60,000 과소계상

④ 비용총계 ₩60,000 과대계상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6년 1~2월분 임대료 60,000원은 아직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선수수익인 부채**로 남겨야 한다. 이를 임대수익에서 부채로 대체하는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부채가 60,000원 과소계상**된다.

계산 과정

기간 구분: 2015년 3월 1일에 받은 360,000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2개월분이다. 2015년 말까지 경과한 기간은 10개월이고, 다음 연도에 속하는 기간은 2개월이다. 임대수익은 현금 수취 시점이 아니라 **임대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따라 인식한다.

미경과분 계산: 임대료를 월별로 배분하면 월 임대료는 360,000 ÷ 12 = 30,000원이다. 따라서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2개월분은 $360{,}000 \times \frac{2}{12} = 60{,}000$원이다. 2015년에 인식할 임대수익은 360,000 − 60,000 = 300,000원이다.

필요한 수정분개: 처음에 전액을 임대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기말에는 차변에 임대수익 60,000원, 대변에 선수수익 60,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선수수익은 돈을 미리 받았지만 **앞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남아 있는 부채이다. 이 분개는 수익을 줄이고 부채를 늘리며, 현금이나 비용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누락의 영향: 수정분개를 하지 않으면 선수수익이 기록되지 않아 부채총계가 60,000원 과소계상된다. 임대수익과 당기순이익은 60,000원 과대계상되므로 자본총계도 **과소계상이 아니라 60,000원 과대계상**된다. 이미 받은 현금에는 변동이 없고 비용도 조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총계와 비용총계에는 오류가 없다. 따라서 ③의 부채총계 60,000원 과소계상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기계장치를 2016년 1월 1일 ₩1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10,00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16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9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1년간 감가상각한 뒤의 **장부금액 70,000원**을 공정가치 90,000원으로 올리는 차액 20,000원이 재평가잉여금이다.

계산 과정

연간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2016년 1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연말까지 1년분을 상각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00,000-10,000}{3}=30,000$원이다.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취득원가에서 2016년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100,000 - 30,000 = 70,000원이다. 이는 1년분 감가상각을 반영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재평가모형에서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비교 기준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이므로 증가액은 90,000 - 70,000 = 20,000원이다.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한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은 20,000원으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의 201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임차료와 이자비용은 각각 ₩150,000과 ₩100,000으로 보고되었고, 재무상태표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4년도에 현금으로 지출한 임차료와 이자비용은?

	2014년 초	2014년 말
선급임차료	–	₩ 15,000
미지급이자	₩ 40,000	–

① 임차료: ₩135,000, 이자비용: ₩60,000

② 임차료: ₩135,000, 이자비용: ₩100,000

③ 임차료: ₩165,000, 이자비용: ₩100,000

④ 임차료: ₩165,000, 이자비용: ₩14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급임차료의 증가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현금 지급액**이고, 미지급이자의 감소는 **전기에 발생한 이자의 지급액**이다. 이를 당기 비용에 더하면 현금 지출액은 임차료 165,000원, 이자비용 1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은 현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당기에 발생한 금액을 나타낸다. 현금 지출액을 구하려면 재무상태표의 선급액과 미지급액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임차료: 선급임차료는 미리 지급했지만 아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다. 표에서 기초 잔액은 0원, 기말 잔액은 15,000원이므로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15,000원은 당기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기 비용에 선급임차료 증가액을 더한다**.
현금 지급 임차료 = 임차료 비용 + 기말 선급임차료 − 기초 선급임차료
= 150,000 + 15,000 − 0 = 165,000원

이자비용: 미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이다. 표에서 기초 잔액은 40,000원, 기말 잔액은 0원이므로 당기 발생 이자 100,000원뿐 아니라 기초에 남아 있던 이자 40,000원도 지급한 것이다. 이 40,000원은 **당기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당기 현금 지출에는 포함된다**.
현금 지급 이자 = 이자비용 + 기초 미지급이자 − 기말 미지급이자
= 100,000 + 40,000 − 0 = 140,000원

현금으로 지출한 임차료 165,000원과 이자비용 140,000원은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의 2015년 기초상품은 ₩2,000이고 당기상품매입액은 ₩15,000이다. 상품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기말상품은 ₩2,000이다. (주)한국의 2015년 매출원가는? (단, 상품과 관련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 반품조건부로 판매한 상품 ₩3,000 중 ₩1,000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015년 12월 24일에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1,000이 2016년 1월 2일에 입고되었다.
◯ 시용판매한 상품 중 2015년 말 현재 고객이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금액은 ₩1,000(판매가)이며 시용매출의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10%이다.
◯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 발송한 상품 중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적송품은 ₩3,000이다.

① ₩7,100
② ₩8,100
③ ₩9,100
④ ₩11,1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고에는 창고 밖에 있어도 회사에 귀속되는 상품을 포함하며, 미확정 시용품은 **판매가가 아닌 원가 900원**으로 반영한다. 조정한 기말재고는 8,900원이므로 매출가능상품원가 17,000원에서 이를 뺀 매출원가는 **8,1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매출원가 계산 기준: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초상품에 당기상품매입액을 더한 뒤 기말상품을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구한다.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이 없으므로 별도 손실 조정은 필요 없다. 매출가능상품원가는 2,000원 + 15,000원 = 17,000원이다.

반품조건부 판매상품: 2015년의 수익인식 기준에서는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중요한 판매위험이 남아 있어 판매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3,000원 중 추정 가능한 1,000원을 제외한 **2,000원은 회사의 기말재고에 포함**한다.

운송 중 매입상품: FOB 선적지인도조건에서는 **선적 시점에 구매자에게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다. 2016년 1월 2일에 입고되었더라도 2015년 말 현재 회사에 귀속되는 운송 중 상품 1,000원을 기말재고에 포함한다. 문제에서 조정 대상은 기말상품이므로 주어진 당기상품매입액 15,000원에 이 금액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미확정 시용품: 고객이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판매가 확정되지 않아 회사의 기말재고에 포함한다. 제시된 1,000원은 판매가이고, 매출총이익률 10%는 판매가의 10%가 이익이라는 뜻이므로 **원가는 판매가의 90%**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에 더할 금액은 1,000원 × (1 - 10%) = 900원이다.

수탁자 보관 적송품: 위탁판매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보냈을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판매로 인식한다.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미판매 적송품 3,000원은 위탁자인 회사의 기말재고에 포함한다.

기말상품 조정: 자료를 반영하기 전 기말상품 2,000원에 반품조건부 상품 2,000원, 운송 중 상품 1,000원, 미확정 시용품 원가 900원, 적송품 3,000원을 더한다. 조정한 기말상품은 2,000원 + 2,000원 + 1,000원 + 900원 + 3,000원 = 8,900원이다.

매출원가 산출: 매출가능상품원가 17,000원 중 기말에 남아 있는 8,900원을 제외하면 당기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된다. 매출원가는 17,000원 - 8,900원 = 8,100원으로, ②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② 현행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자산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취득할 때 지불할 금액'은 **현행원가**의 설명이다. 실현가능가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때 **현재 수취할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종전 개념체계의 역사적 원가·현행원가·실현가능가치·현재가치를 구분한다.

① O: 역사적 원가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의 금액을 기초로 하는 측정기준이다. 부채는 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하므로 선지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O: 이 문항의 종전 개념체계에서 부채의 현행원가는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이다. 미래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X: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취득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은 **현행원가**이다. 실현가능가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때 현재 수취할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즉, 현행원가는 '지금 사는 데 드는 금액', 실현가능가치는 '지금 팔아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④ O: 자산의 현재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이다. 미래의 현금을 단순히 합산하지 않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

NoteBase

문 7. 재무제표 표시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②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③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재분류조정분을 포함하여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①의 '공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타포괄손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이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비용도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공시 대상에는 재분류조정과 관련된 법인세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시하지 않는다'를 '공시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한다. 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만으로 성과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면 추가 표시를 통해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다.

③ O: 한 기간에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손익 인식이 원칙이고, 다른 기준서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한 항목 등에는 그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이 임의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판매비와관리비에는 물류원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영업활동의 성과를 따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7년 4월 1일 사채(표시이자율 10%,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00)를 ₩95,200에 발행하였다. 한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사채발행비 ₩2,000이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사채발행으로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 총액은?

① ₩30,000

② ₩34,800

③ ₩35,200

④ ₩36,8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만기까지의 이자비용에는 표시이자뿐 아니라 **할인발행차금과 사채발행비의 상각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3년간의 표시이자 30,000원에 할인발행차금 4,800원과 사채발행비 2,000원을 더한 36,8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최초 장부금액: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최초 장부금액은 발행금액 95,200원에서 사채발행비 2,000원을 뺀 93,200원이다.

표시이자 총액: 표시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연간 표시이자는 100,000원 × 10% = 10,000원이며,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3년간의 합계는 10,000원 × 3년 = 30,000원이다. 발행일이 4월 1일이어도 이 문제는 특정 회계연도가 아니라 전체 3년의 이자비용을 묻는다.

상각액 총액: 만기에는 액면금액 100,000원을 상환하므로, 최초 장부금액 93,200원과의 차이 6,800원이 만기까지 추가로 이자비용에 반영된다. 이는 할인발행차금 4,800원과 사채발행비 2,000원의 합계로, **만기까지 장부금액을 액면금액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이다.

이자비용 총액: 표시이자 총액과 상각액 총액을 합하면 30,000원 + 6,800원 = 36,8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중에 자기주식 20주를 외상으로 ₩40,000에 취득하였고 이 중 10주를 현금 ₩30,000에 처분하였다. 이 주식거래로 인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자산은 ₩30,000 증가한다.

② 자본은 ₩20,000 감소한다.

③ 부채는 ₩40,000 증가한다.

④ 자본잉여금은 ₩10,000 증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 취득으로 자본이 40,000원 감소하지만, 처분할 때 자본이 30,000원 증가하므로 전체 자본은 **10,000원 감소**한다. 남아 있는 자기주식 20,000원의 자본 차감 효과와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원의 자본 증가 효과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원가법에서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며,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처분한 10주의 취득원가는 $40,000 \times \frac{10}{20} = 20,000$원이다. 현금 수취액 30,000원과의 차이 10,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기초 자기주식처분손익이 없으므로 이 증가액을 상계할 기존 잔액은 없다.

① O: 자기주식은 **외상으로 취득**했으므로 취득 시 현금 등 자산의 변동은 없다. 이후 10주를 처분하면서 현금 30,000원이 유입되므로 자산은 총 30,000원 증가한다.

② X: 취득 시 자기주식 40,000원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처분 시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원가 20,000원에 대한 차감이 해소되고,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원이 추가되어 자본이 3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자본은 40,000 − 30,000 = 10,000원 감소한다. '20,000원 감소'는 **남은 자기주식만 반영하고 처분이익을 빠뜨린 금액**이다.

③ O: 자기주식 취득대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금액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 처분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 미지급금을 갚았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부채는 40,000원 증가**한 상태이다.

④ O: 자기주식 처분 시 받은 현금 30,000원에서 처분한 주식의 취득원가 20,000원을 빼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10,000원이다. 이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7년 매출원가는? (단,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적용한다)

	원가	매가
2017년 기초재고	₩250,000	₩400,000
2017년 순매입액	₩1,250,000	₩1,600,000
2017년 매입운임	₩100,000	–
2017년 순매출액	–	₩1,800,000

① ₩1,120,000

② ₩1,160,000

③ ₩1,280,000

④ ₩1,44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합쳐 원가율을 구하며, **매입운임도 원가에 포함**한다. 원가율 80%를 기말재고 매가 200,000원에 적용하면 기말재고 원가는 160,000원이므로, 매출원가는 1,4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판매가능재고의 원가와 매가: 소매재고법은 매가로 파악한 기말재고에 원가율을 적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매입운임은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데 든 부대비용이므로 **원가에만 가산**한다. 판매가능재고 원가는 250,000 + 1,250,000 + 100,000 = 1,600,000원이고, 매가는 400,000 + 1,600,000 = 2,000,000원이다.

2. 가중평균 원가율: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합친** 판매가능재고의 원가를 매가로 나눈다. 원가율은 $\frac{1,600,000}{2,000,000} \times 100 = 80\%$이다. 이는 매가 100원당 원가가 80원이라는 뜻이다.

3. 기말재고 원가: 판매가능재고 매가에서 순매출액을 빼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매가가 된다. 기말재고 매가는 2,000,000 − 1,800,000 = 200,000원이다. 여기에 원가율을 적용하면 기말재고 원가는 200,000 × 80% = 160,000원이다.

4. 매출원가: 판매가능재고 원가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의 원가**를 차감한다. 2017년 매출원가는 1,600,000 − 160,000 = 1,44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주)대한의 2016년 말 현재 은행계정조정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은행 측은 기발행미인출수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발행미인출수표 금액은?

◯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20,000
◯ (주)대한의 장부상 금액: ₩17,000
◯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대한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
— 예금이자: ₩1,000
— 부도수표: ₩2,000
◯ 은행은 (주)민국의 발행수표 ₩6,000을 (주)대한의 발행수표로 착각하여 (주)대한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① ₩16,000
② ₩14,000
③ ₩12,000
④ ₩1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회사 장부를 조정한 잔액은 16,000원이며, 은행의 잘못된 인출을 되돌린 잔액은 26,000원이다.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하므로 그 차이인 10,000원이다.

계산 과정

회사 측 잔액 조정: 은행계정조정표에서는 회사 장부와 은행 잔액의 차이 원인을 반영하여 두 잔액을 일치시킨다. 예금이자 1,000원은 은행이 입금했지만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잔액에 가산한다. 부도수표 2,000원은 입금으로 처리했던 수표가 결제되지 않아 예금이 감소한 금액이므로 차감한다. 따라서 **조정 후 회사 잔액**은 17,000 + 1,000 − 2,000 = 16,000원이다.

은행 측 오류 수정: 은행이 (주)민국의 발행수표 6,000원을 (주)대한의 계좌에서 잘못 인출하였다. 이는 (주)대한이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은행 잔액에 6,000원을 다시 가산**한다. 오류를 바로잡은 은행 잔액은 20,000 + 6,000 = 26,000원이다.

기발행미인출수표 계산: 기발행미인출수표는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여 장부에서 차감했지만 은행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표이다. 따라서 **회사 장부는 추가로 조정하지 않고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26,000원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조정 후 회사 잔액 16,000원과 같아야 하므로, 기발행미인출수표 금액은 26,000 − 16,000 = 10,000원이다. 이는 ④의 1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조부문원가는 제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가 중요한 배부방법은 상호배부법이다.

③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에 관계없이 배부액이 일정하다.

④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고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한다. 다른 보조부문에서 원가를 넘겨받지 않으므로 배부순서를 바꾸어도 제조부문별 배부액은 같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보조부문원가는 **제조부문에 배부하여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보조부문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 용역이 제조활동에 사용되므로, 이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다.

② X: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가 중요한 방법은 **단계배부법**이다. 단계배부법은 먼저 배부를 마친 보조부문에 나중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시 배부하지 않으므로, 순서에 따라 원가를 배부받는 부문과 배부액이 달라진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사이의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반영하여 원가를 산정하므로 배부순서에 좌우되지 않는다.

③ O: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의 용역소비량만을 기준으로**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한다. 예를 들어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이 서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두 부문 사이에는 원가를 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보조부문을 먼저 배부하든 각 부문의 배부대상 원가와 제조부문별 배부비율이 같아 배부액이 일정하다.

④ X: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보조부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원가까지 반영하여 제조부문에 배부하기 때문이다. 상호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를 무시하는 직접배부법을 사용하여 배부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의 6월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세전순이익 ₩4,000을 달성하기 위한 6월 매출액은? (단, 판매량은 생산량과 동일하며, 법인세율은 30%이다)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5
◯ 공헌이익률: 20%
◯ 고정원가: ₩10,000

① ₩60,000
② ₩70,000
③ ₩80,000
④ ₩9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목표가 **세전순이익**이므로 법인세율 30%를 적용해 이익을 환산하지 않는다. 고정원가 10,000원과 목표이익 4,000원을 합한 공헌이익 14,000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공헌이익률 20%로 나누면 매출액은 7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목표이익 확인: 요구하는 이익은 **세전순이익 4,000원**이다.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목표이므로, 제시된 법인세율 30%로 환산하지 않고 4,000원을 그대로 사용한다.

2. 필요한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여기서 고정원가를 차감하면 이익이 된다. 따라서 목표이익을 얻으려면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을 합한 금액**만큼의 공헌이익이 필요하다. 필요한 공헌이익은 10,000 + 4,000 = 14,000원이다.

3. 목표 매출액 계산: 공헌이익률은 매출액 중 공헌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헌이익률이 20%이므로 필요한 공헌이익을 0.20으로 나누어 매출액을 구한다. 목표 매출액은 $\frac{14,000}{0.20}$ = 70,000원이다.

따라서 6월에 필요한 매출액은 7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의 4월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4월의 유리한 재료수량차이(능률차이)는?

◯ 실제 재료구매량: 3,000 kg
◯ 실제생산에 대한 표준재료투입량: 2,400 kg
◯ 실제 재료구입단가: ₩310/kg
◯ 실제 재료사용량: 2,200 kg
◯ 불리한 재료가격차이(구입시점기준): ₩30,000

① ₩50,000
② ₩55,000
③ ₩60,000
④ ₩6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투입량보다 재료를 200 kg 적게 사용했으므로 유리한 수량차이가 발생한다. 이 절약량을 **표준단가 300원/kg**으로 평가한 금액은 6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표준단가 구하기: 구입시점의 재료가격차이는 실제 구매량에 실제단가와 표준단가의 차이를 곱한 금액이다. 불리한 가격차이 30,000원은 실제단가가 표준단가보다 높아서 발생한 초과 구입원가이다. 이를 **실제 구매량 3,000 kg**으로 나누면 kg당 초과액은 $\frac{30,000}{3,000}$ = 10원/kg이다. 따라서 표준단가는 310 − 10 = 300원/kg이다.

2. 재료 절약량 구하기: 재료수량차이는 같은 실제 생산량에 대해 표준상 허용된 투입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한다. **구매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적용하므로 절약량은 2,400 − 2,200 = 200 kg이다. 이는 실제 생산에 필요한 표준량보다 재료를 200 kg 적게 사용했다는 뜻이다.

3. 수량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사용량 차이만의 원가 영향을 구하려면 두 수량을 동일한 **표준단가**로 평가해야 한다. 유리한 재료수량차이는 200 kg × 300원/kg = 60,000원이다.

표준보다 적게 사용하여 절약한 원가가 60,000원이므로 ③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가의 흐름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초기에 50%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가공이 50% 진행된 시점부터 공정진행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다음의 5월 자료를 이용한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 기초재공품(공정의 완성도 70%): 2,000개
◯ 당기투입: 5,000개
◯ 완성품: 5,000개
◯ 기말재공품(공정의 완성도 40%): 2,000개

① 4,400개
② 4,600개
③ 4,800개
④ 5,000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에 투입된 재료만** 완성품환산량에 반영한다. 재료 투입 일정에 따른 기초·기말재공품의 재료 투입률은 각각 70%·50%이므로, 당기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600 + 3,000 + 1,000 = 4,60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완성품환산량은 투입된 재료의 양을 완성품 한 개에 필요한 전체 재료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량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투입된 재료를 제외**하고 당기에 투입된 재료만 계산한다.

1. 재공품의 재료 투입률: 재료의 50%는 공정초기에 투입되고, 나머지 50%는 공정 완성도 50%부터 100%까지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따라서 공정 완성도 70%인 기초재공품의 재료 투입률은 $50\% + 50\% \times \frac{70-50}{100-50} = 70\%$이다. 공정 완성도 40%인 기말재공품은 **추가 투입 시작점인 50%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초기 재료 50%만 투입되어 있다.

2. 기초재공품 완성분: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 2,000개가 먼저 완성된다. 이 제품들에는 재료가 이미 70% 투입되어 있으므로 당기에는 나머지 30%만 투입한다. 완성품환산량은 2,000 × (100% − 70%) = 600개이다.

3. 당기 착수·완성분: 완성품 5,000개에서 기초재공품 2,000개를 빼면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제품은 3,000개이다. 이 제품들에는 전체 재료가 당기에 투입되었으므로 완성품환산량은 3,000 × 100% = 3,000개이다.

4. 기말재공품: 당기투입 5,000개 중 당기에 완성한 3,000개를 제외한 2,000개가 기말에 남는다. 재료 투입률은 공정 완성도 40%가 아니라 **초기 투입률 50%**이므로 완성품환산량은 2,000 × 50% = 1,000개이다.

5. 당기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 기초재공품을 완성하는 데 추가 투입한 재료, 당기 착수·완성품의 재료, 기말재공품의 재료를 합산한다. 600 + 3,000 + 1,000 = 4,600개로, ②의 4,600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③ 국가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 포함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의 증가가 모두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채납은 수익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한다.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이다. 다만,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의 재생산·재취득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②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은 금융리스의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정한다. 금융리스는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다.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각각 계상**한다. 이는 자산을 사용하는 데 따른 효익과 앞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이후 리스자산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그 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③ O: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매입가격만을 취득원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취득에 수반되는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총평균법은 같은 종목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종목의 평균원가를 산정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④ X: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은 수익을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중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선지의 '수익에 포함한다'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기부채납으로 자산과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재정운영보고서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1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③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에서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여러 회계실체를 합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작성 범위 안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개별 회계실체 자체의 거래를 보여 주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밖의 회계실체와 거래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선지의 '상계한다'를 '상계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때 통합 범위 안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주고받은 거래가 전체 실적으로 중복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③ O: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다만 단순히 금액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유형 안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다른 유형에 속한 회계실체와의 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무제표를 통합하는 단계에서 상계한다.

④ O: 같은 규칙 제9조제4항은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두 기간의 정보를 함께 제시하면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성과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비교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계약금액이 ₩5,000,000인 교량건설 정액도급계약을 수주하였고, 2017년 12월 31일에 완공하였다. (주)한국은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교량건설과 관련된 발생원가와 회수대금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7년에 계상해야 할 이익은? (단,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발생원가	회수대금
2016년	₩ 1,600,000	₩ 2,200,000
2017년	₩ 2,400,000	₩ 2,800,000

① ₩1,000,000

② ₩600,000

③ ₩500,000

④ ₩4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발생원가 기준으로 2017년에 수행한 공사의 비중은 60%이므로, 공사수익은 3,000,000원이다. 여기서 당기 발생원가 2,400,000원을 빼면 **2017년 이익은 600,000원**이다. 회수대금은 진행률이나 이익의 계산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공사원가: 표의 발생원가는 2016년 1,600,000원, 2017년 2,400,000원이므로 총공사원가는 1,600,000 + 2,400,000 = 4,000,000원이다. 진행기준에서는 **대금의 회수액이 아니라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2. 진행률: 발생원가에 기초한 누적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를 총공사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2016년 말 누적진행률은 $\frac{1,600,000}{4,000,000} \times 100 = 40\%$이고, 2017년 말에는 공사가 완공되어 100%이다. 따라서 **2017년 당기에 수행한 비중**은 100% − 40% = 60%이다.

3. 2017년 공사수익: 계약금액 5,000,000원에 당기 수행 비중 60%를 적용하면 $5{,}000{,}000 \times 60\% = 3{,}000{,}000$원이다. 이는 완공 시점까지의 누적수익 5,000,000원에서 2016년에 인식한 수익 2,000,000원을 뺀 금액과 같다.

4. 2017년 이익: 당기 공사수익에서 당기 발생원가를 차감하므로 3,000,000 − 2,400,000 = 600,000원이다. 이 금액은 ②의 60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④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하며, 높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는다. 유입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우발자산의 주석 공시 기준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따라서 '높지 않은 경우'를 '높은 경우'로 고쳐야 한다.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 공시도 하지 않는다.

② O: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다루어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는다**. 즉,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아주 낮은 경우를 제외한다.

③ O: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불확실성이 있어 재무상태표에 부채나 자산 금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각각의 공시 요건에 따라 주석으로 알린다. **인식과 주석 공시는 구별**해야 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해지면 해당 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과 관련 수익을 인식한다.

④ O: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인식한다. 선지는 현재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나머지 두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충당부채 인식 요건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의 2014년 말 수정전시산표와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2014년 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 총액은?

수정전시산표

현금	₩92,000	매입채무	₩32,000
매출채권	65,000	대손충당금－매출채권	2,000
상품	5,000	단기차입금	35,000
매입	100,000	미지급금	50,000
건물	300,000	미지급비용	10,000
임차료	10,000	감가상각누계액－건물	30,000
급여	7,500	자본금	250,000
보험료	3,500	이익잉여금	40,000
이자비용	5,000	매출	135,000
		임대수익	4,000
	₩588,000		₩588,000

<결산정리사항>

○ 2014년 말 재고자산은 ₩3,500이다.

○ 건물 ₩300,000은 2013년 1월 1일에 취득하였고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0)으로 상각한다. (단, 건물은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보험료 미경과액은 ₩1,750이다.

○ 2014년 말 현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을 ₩60,000으로 추정하였다.

① ₩397,250

② ₩430,000

③ ₩462,250

④ ₩53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과 건물은 각각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영하고,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자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자산 총액은 397,25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은 결산정리 후 각 자산의 장부금액을 합산하여 구한다.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은 부채가 아니라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매입·임차료·급여·보험료·이자비용 등 비용 계정의 잔액을 그대로 자산에 더하지 않는다.

현금: 현금에 관한 결산정리사항이 없으므로 92,000원을 그대로 반영한다.

매출채권: 장부상 매출채권은 65,000원이지만 회수가능액은 60,000원이다. 따라서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65,000 − 60,000 = 5,000원이다. 기존 충당금 2,000원에 3,000원을 추가 설정하며,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에서 기말 충당금 전액을 차감한** 60,000원을 반영한다.

상품: 결산정리사항에서 제시한 **기말재고액 3,500원**을 자산에 반영한다. 수정전시산표의 상품 5,000원과 당기 매입 100,000원을 기말재고에 더하지 않는다.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말에 남은 상품만 자산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건물: 취득원가 300,000원,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 10년이므로 정액법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300{,}000 - 0}{10} = 30{,}000$원이다. 2013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2014년 말까지 2년이 지났으므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 30,000원에 당기 상각액 30,000원을 더한 누계액은 60,000원이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므로 **취득원가에서 누적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건물 장부금액을 300,000 − 60,000 = 240,000원으로 계산한다.

선급보험료: 비용으로 기록된 보험료 3,500원 중 미경과액 1,750원은 아직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보험료에서 빼고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대체**한다. 자산에 포함할 금액은 1,750원이다.

자산 총액: 현금 92,000원, 매출채권 순액 60,000원, 상품 3,500원, 건물 순액 240,000원, 선급보험료 1,750원을 합산한다.
92,000 + 60,000 + 3,500 + 240,000 + 1,750 = 397,250원이다. 이는 ①의 397,250원과 일치한다.

NoteBase